

도심 속 폭염 탈출...나주시 무료 물놀이장 인기 폭발

영산강 정원 물놀이장·빛가람 호수공원 물놀이장 잇단 개장

“폭염 탈출, 나주로 오세요.” 나주시가 찜통더위를 식혀줄 도심 속 무료 물놀이 시설을 잇따라 개장해 인기를 얻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시원한 계곡물을 받아 운영하는 ‘금성산 생태물놀이장’이 지난 24일 가장 먼저 문을 열었다. 오는 18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올



윤병태(맨 오른쪽) 나주시장이 지난 25일 개장한 영산강 정원 물놀이장 현장을 점검하고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주시 제공>

해부터 쾌적한 수질 유지 관리를 위해 유료화로 전환했다.

1인 이용 요금은 2000원이지만 나주시민과 가면 대상자는 1000원 할인하며 주차비는 무료다.

지난 25일에는 ‘영산강 정원 물놀이장’이 올해 처음으로 강변 저류지에 개장했다.

이 물놀이장은 수심이 무릎 아래로 깊지 않아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아름드리 모양새를 잡아가는 ‘영산강 정원’의 운곽을 직접 조망할 수 있고 길게 식재된 다양한 나무를 걸으며 감상할 수 있다.

오는 5일부터는 혁신도시 빛가람 호수공원으로 물놀이 시설을 옮겨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는 바닥분수와 함께 8월14일까지 시원한 여름을 선사할 예정이다. ‘영산강 정원 물놀이장’과 ‘빛가람 호수공원 물놀이장’은 무료다.

나주시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는 상수도를 비롯한 바닥분수 안전 점검과 주변 환경 정비, 그늘막을 설치해 쾌적하고 안전한 물놀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집에서 가까운 도심 속 물놀이장에서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시민들이 한여름 무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물놀이장 수질과 시설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김한중 장성군수가 남창계곡 일원에서 열린 ‘제15회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 장성에서 출발합니다

청소년·대학생 120명 발대식

장성군이 영산강 환경을 살리기 위한 추진하는 대규모 탐사 활동이 시작됐다.

장성군은 지난 30일 비영리 민간단체인 ‘영산강 살리기 운동본부’가 남창계곡 일원에서 ‘제15회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청소년과 대학생, 환경단체 관계자 12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대탐사는 ‘영산강, 생명의 강으로’라는 주제로 8월 2일까지 진행된다.

남창계곡 발대식으로 시작해 장성호, 황룡강을 도보 탐사하고 나주 황포돛배 선착장으로 이동해 선박 탐사에 나선다.

이어 영산대교, 죽산보, 영산강 하굿둑을 찾아 자전거 탐사를 펼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해당 지역 수상대계, 동식물과 향토문화, 역사 등을 조사하며 영산강의 생태적 가치를 알아보고 보전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하천의 미래 모습”에 대한 조별 발표도 진행한다.

올해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는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후원으로 열렸다.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는 영산강 보존과 자연친화적 개발을 위해 1999년 출범한 인근 8개 시·군 협의체다.

영산강 수질 개선과 뱀길 복원, 고대 문화권 개발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도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한중 장성군수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영산강의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아보는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가 장성에서 출발하게 되어 뜻깊다”며 “우리 모두에게 환경과 생태계의 소중함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성군이 영산강 환경을 살리기 위한 추진하는 대규모 탐사 활동이 시작됐다.

장성군은 지난 30일 비영리 민간단체인 ‘영산강 살리기 운동본부’가 남창계곡 일원에서 ‘제15회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함평군 교육발전특구 지정 글로벌 스포츠 교육도시 육성

함평군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돼 글로벌 스포츠 교육도시로 도약한다.

함평군은 교육부가 주관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함평군은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교육부로부터 연간 최대 30억원의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지원과 맞춤형 교육 규제 특례를 우선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함평군은 함평형 돌봄·놀이, 학교 간 통합·연계 교육체계 구축, 글로벌 특화교육, 지역정주 선순환 체계 구축 등 ‘글로벌 스포츠 교육도시 함평’을 비전으로 한 11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함평의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힘을 보태주시 함평군민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갖춘 특성화된 지역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불금·주말 나주서 소비하면 혜택 풍성”

나주사랑카드 사용액 5% 적립

나주시에 관광객 유입을 늘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카드형 지역화폐인 ‘나주사랑카드’ 사용 고객에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나주시에 따르면 금요일과 주말 나주를 방문해 나주사랑카드 가맹점을 이용한 타 지역 방문객에게 캐시백 이벤트에 이어 휴가철 15만원 이상 사용하면 추가 적립 혜택을 선물한다.

처음 나주를 방문했다라도 지역 농협에서 ‘나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후 스마트폰 앱(chak-적)만 설치하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 6월부터 타 지역 거주자가 금·일요일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나주사랑카드로 결제하면 총사유 금액의 5%를 모바일 앱에 즉시 적립해 주고 있다.

여기에 오는 8월 18일까지 금요일과 주말 나주사랑카드로 15만원 이상 결제하면 40명을 추첨해 1만원을 추가 적립 해주는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

한다. 이벤트 참여는 나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juwon053@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는 이번 이벤트 게시 후 한 달 보름 만에 타 지역 거주자의 주말 가맹점 결제 누적액이 6200만원을 넘어서는 등 지역 상권 매출 상승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상권 활성화의 단기 역할을 하는 나주사랑카드는 주로 식당, 카페, 주유소 등으로 사용 빈도가 높았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금성산 생태물놀이장과 영산강정원·빛가람호수공원 무료 물놀이 시설이 잇따라 개장하면서 주말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말 나주를 찾는 타 지역 거주자를 위한 가성비 좋은 이벤트를 지속해서 마련해 지역 상권에 훈풍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지난 30일 강진군청 구내식당에서 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진 쌀귀리 고추장 불고기 시식 평가회가 열렸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쌀귀리 활용 가공식품 개발 박차...고추장 불고기 시식회

96% “대만족” 75% “구매의사” 커피·베이커리 등 상품화 모색

강진군이 전국 최대 쌀귀리 생산지인 지역 특성을 살려 특화 농산물인 쌀귀리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 30일 강진에서 생산되는 쌀귀리를 활용한 ‘고추장 불고기 시식회’를 군청 구내식당에서 갖고, 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식 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쌀귀리 고추장 상품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고 개선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이날 시식회에 참석한 직원 중 만족도가 ‘높음 이상’이 78명(96%), 가공식품 개발 시 구매의사 및 추천의향은 ‘높음 이상’이 61명(75%), 쌀귀리 고추장과 불고기의 ‘어울림 정도’는 73명(93%)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이 외에도 “고추장에 쌀귀리를 첨가하니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지고 특색 있는 식감이 우수해 밀키트나 가공식품으로 개발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과 함께 “쌀귀리의 건강한 이미지와 고추장과 불고기의 조합 역시 상품성이 높아 보인다”는 평가도 했다.

군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쌀귀리 2차 가공

품 개발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제품이 개발되면 병영면에서 개최되는 불금불파 행사와 연계해 판매까지 연결시킨다는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해 쌀귀리 융복합 산업특구 지정으로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강진 쌀귀리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건강한 쌀귀리 밥상, MZ 세대를 겨냥한 커피, 베이커리 제품, 당뇨병 개선에 효과적인 귀리 성분을 추출한 기능성 식품 개발 등 다양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무궁무진한 쌀귀리의 상품화 가능성을 현실화시켜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정남진 장흥 물축제장 한우 최대 45% 할인

4일까지 축제현장 할인행사

장흥군은 정남진 장흥 물축제 기간(27일~8월 4일)에 이동 판매차량을 활용한 한우 할인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지난 31일 밝혔다.

물축제가 열리고 있는 탐진강변에서 진행 중인 한우 할인판매는 정남진장흥한우농촌융복합사업단, 토요시장한우판매협의회, 한우협회가 함께 추진한다.

이들 단체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소비자에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한우고기 제공을 위해 할인행사를 마련했다.

할인행사에서는 1등급 이상 한우고기를 시중가 대비 최대 4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장흥한우로 만든 떡갈비 시식회도 진행 중이다. 관장오 토요시장한우판매협의회 회장은 “원하는 고기를 직접 골라 식당에서 바로 구워먹는 장흥 토요시장만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담양에서 예술로 서로’ 참여 예술인 모집

(재)담양군문화재단이 ‘담양에서 예술로, 서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담양 예술인을 모집한다.

‘담양에서 예술로, 서로’는 담양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사진, 영상, 글을 담은 ‘예술가 프로젝트 제작 지원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기록을 통해 알아가는 과정을 거쳐 각자의 삶과 가치를 조명해 의미 있는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 7월부터 시작된 담양 예술인-에

술단체 DB 등록 서비스에 연계된 사업으로 지역 예술인 네트워크 확산·예술인 발굴 및 아카이브 등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앞으로도 예술인-예술단체 대상의 다양한 연계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담양에서 예술로, 서로’ 프로그램에서 제작된 프로젝트 사진과 영상은 개인의 단소장에 그치지 않고 담양군문화재단 문화예술 DB에 아카이빙해 소중한 문화기록자산으로 보관될 예정이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화순군, 상하수도 요금 전용 홈페이지 개설

조회·납부 등 24시간 편의 제공

화순군이 주민들의 상하수도요금 납부 편의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사이버 창구는 상하수도요금 조회·납부, 계좌 자동이체 신청·해지, 카드 자동결제 신청·해지, 이 사 요금 정산, 수용가 명의 변경 신청, 문자 고지 신청·해지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제공한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기존 방식의 각종 요금 관련 민원을 PC 또는 휴대전화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고 요금 납부도 가능하다.

또 신용카드 납부서비스는 본인인증을 통해 매

월 신용카드 자동납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서 주민들의 요금 납부 편의 제공과 함께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소에도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상하수도 요금 전용 홈페이지 접속은 화순군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상하수도 요금) 및 홈페이지 주소에 접속하면 된다. 다만 아파트 거주 가구는 관리사무소에서 수도 요금을 부과하므로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없다.

박종욱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하여 수도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